

프란치스칸 가족모임 퀴니얼에 참석하세요.

-케이트 클레이널트, OFS-

하느님은 가족구조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가족들이 불어나게 하신다. 우리 가 바치는 기도들 가족을 위해 한다, 주기도문도 바치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양자 양녀들로 태어났다. 우리들은 프란치스칸 삶속에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들 처럼, 우리 모두 좀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Holiday 가 지난후, 여유의 돈이 좀 더 생길때, 혹은 너무 바쁘지않을 때 하며, 우리는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린다.

삶이 우리를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최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때가 언제였던가? 진실로 그 소명이 잘되게 노력하였던가?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 소명을 위해 노력하였던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다시 시작하고 회복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이 필요하다. 퀴니얼은 여러분의 소명을 확인하고 프란치스칸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아주 좋은기회이다.

“작은 형제회” 작은 가족들 처럼 소규모의 그룹으로 나뉘어 만나서 이야기 하고 듣고, 토론을 통하여 서로에게서 배우는것이다. 지난 퀴니얼에 참석 하였다면 같은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같은 타우십자가를 달은 600 여명 의 프란치스칸이 있는 미사에 참석한다는 것이 어떤 것 인지 알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퀴니얼에 처음으로 참석한다면, 이 모임이 어떠하였는지를 내가 글로 쓸수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퀴니얼은 시카고에서 있었고 미사로 끝마쳤다.

마침성가는 “Go Make A Difference” 였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 과 환희와 프란치스칸 열정이 마치 holiday Inn 의 지붕을 날려 버릴 듯이 대단하였다! 우리들 모두의 목소리 가 하나로 뭉쳐 주님을 찬송하며 “go make a difference” 하게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며 북돋아주었다. 나는 그때의 감격스러움을 지금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께 주고싶다. 이런 기회는 5 년만에 온다. 지금보다 더 좋은때는 없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인생은 가족과 시작하고 가족과 끝을 맺는다. 꼭~ 세인트루이 (Saint Louie)에서 만나요!.